



금감원-인니 금융감독청, 상호 직원파견 협의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하고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앞줄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KT-RAPA, 이동통신 단말 검증 시스템 공동 구축

KT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국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 검증 환경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김병균 상무(왼쪽)와 RAPA 송정수 상근부회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검증 환경 제공 관련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LG유플러스-메타, 숏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LG유플러스의 디지털 고객경험혁신을 표현하는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양성된다. LG유플러스는 메타코리아와 전략적 디지털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수현 LG유플러스 Consumer부문장(왼쪽)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한국코카-콜라,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한국 코카-콜라는 전일 자사 사옥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2023년 코카-콜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자 환경재단, 밀알복지재단,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팀 차범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뜻을 모으고, 장학금 선발 및 수여에 참여했다. /한국 코카-콜라



여경협 남서울지회, 창립 1주년 기념식 열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회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회원들간 결속을 다졌다. 기념식에는 심영숙 지회장(교통한국과 대표)을 비롯한 회원들 150여명 뿐만 아니라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한 여경협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여경협 남서울지회 심영숙 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경협

SK그룹, '썸머 포 더 시티' 참여... 韓 문화행사 이끈다

‘글로벌 스토리’ 문화 프로젝트 적용 ‘현지 이해 관계자 존중·공감 얻어야’

SK 그룹이 올 여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술축제와 한국문화 행사를 후원한다. 이는 글로벌 스토리의 전략으로 현지 이해 관계자들의 존중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1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SK그룹 5개 멤버사(SK E&S, SKC, SK온, SK주식회사C&C, SK에코엔지니어링)가 오는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미국 뉴욕시 링컨 센터가 주최하는 ‘썸머 포 더 시티(Lincoln Center’s Summer for the City)’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한다. SK그룹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이 후원사로 동참한다. ‘썸머 포 더 시티’ 후원은 SK



링컨센터 썸머 포 더 시티(Lincoln Center's Summer for the City) /SK그룹

의 핵심 경영 전략인 ‘글로벌 스토리’를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인 ‘썸

머 포 더 시티’는 뉴욕시가 자랑하는 대규모 문화 행사다. 지난해에는 30만명 이상의 관객이 비주얼 아트, 음악, 댄스,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올해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코리아인 아트 위크(Korean Arts Week)’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통 무용 공연부터 디지털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7월 19~23일 한 주간 이어진다.

록펠러 센터에서는 동시대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최된다. 영화감독 박찬욱의 사진작품을 비롯해 문성식, 박진아, 이희준, 정하슬린, 정현두 등 현재 한국 예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

을 세계 무대에 본격소개하는 행사다.

‘썸머 포 더 시티’ 후원은 SK의 핵심 경영 전략인 ‘글로벌 스토리’를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글로벌 스토리’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경영전략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중과 이해를 얻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개념이다.

SK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업에 대한 현지인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 ‘푸른코끼리 비폭력 캠페인’ 1.2만명 성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참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진행

삼성이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갔다.

삼성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푸른코끼리 비폭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역량 강화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2월 무리 생활을 하는 코끼리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따와 명명, 사이버 정글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자는 뜻이다.

우선 삼성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도 푸른코끼리 동료로 끌어들이었다. 종전에 함께하던 함께푸른나무재단과 교육부, 사랑의 열매 등과 함께 6자가 예방 교육 활동뿐 아니라 학생 보호와 피해 회복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예방과 홍보 확대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심리 상담 지원 및 예방 문화 확산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에서 사업 홍보, 푸른나무재단은 교육 콘텐츠 제작과 운영 및 사이버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사랑의 열매는 대외 홍보 및 행정 지원을 맡았다. 삼성은 사업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직접 캠페인과 지지서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친사회적 능력 습득을 위한 푸른코끼리 탐험’을 주제로 20개 부스가 마련됐다. 푸른코끼리 탄생과 세계관 소개는 물론 사이버폭력 알아보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 사이버폭력 위험성과 예방교육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청소년 단체와 학교 관계자 및 일반 시민까지 1만2000여명이 참여해 대국민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진행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한 포스터 및 웹툰,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뽑인 14개 작품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청소년과 전현직 교사, 경찰관 등 670여명이 참여해 그림 부문 교육부 장관상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중요성을 시험 문제로 풍자한 서울 진선여고 3학년 김진솔 양 작품 등이 최종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 juk@

건국대 창립 92주년 기념식 성료

경영성과 발표, 근속상 시상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2일 오전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학원창립 9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유자은 이사장의 기념사, 2022년도 경영성과 동영상 발표, 30년 및 20년 근속상 시상 및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자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가오는 창학 100년에 나라를 세운 대학으로서 ‘제2의 건국’이라는 이정표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김양미 공과대학 시스템생명공학과 교수 ▲공종국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등 30년 근속상 74명,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찬일 교수 등 20년 근속상 74명으로 총 148명이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 △전북도민일보 사장 임한 △충청투데이 사장 박신용 ◇감사 △충부매일 사장 한인섭 △중부일보 사장 최윤정 ◇대외협력위원장 △기호일보 사장 한창원 ◇이사 △경남일보 회장 고영진 △영남일보 사장 이승익 △경상일보 사장 엄주호 △전남일보 사장 이재욱 △무등일보 사장 김종석 △중도일보 사장 유영돈 △제민일보 사장 오홍식

부음

▲정옥산씨 별세, 김성경(전북CBS 본부장)씨 장인상 = 14일 0시, 전주시티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6일 오전 9시 50분. 063-274-4444

▲신춘자씨 별세, 이영주·이영옥·이영민·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회장)씨 모친상, 안용녀씨 시모상, 이홍일씨 장모상 = 13일 오후 6시 40분, 제주 초천읍그린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장지 제주 양지공원. 064-784-4114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통해 유럽 폐배터리 시장 공략

테스-갈프 SBS 구축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TESS-AMM)가 포르투갈 에너지기업과 전방위 협력을 통해 남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E-waste) 리사이클링 자회사 테스가 포르투갈 최대 종합에너지기업 갈프 에너지(Galp Energia)와 ‘지속가능 배터리 솔루션(SB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갈프가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파트너로 테스를 택한데는 테스가 보유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걸



토마스 홀버그(Thomas Holberg) 테스 지속가능배터리유틸 글로벌부사장(왼쪽)과 조르지오스 파파드미트리우(Georgios Papadimitriou) 갈프 재생에너지·신사업 부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친 기술력과 노하우, 유럽지역 15곳을 포함해 전세계 23개국 46곳에 걸쳐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글로벌 거점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베리

아 반도 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및 후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남유럽 지역에 거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교두보 삼아 테스를 통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해상풍력기반 그린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홀버그(Thomas Holberg) 테스 지속가능배터리유틸 글로벌부사장은 “갈프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